법의학칼럼

# 만성피로증후군은 위험을 몰고 오기도

문국진/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 만성피로증후군(CFS)은 전염된다.

만성피로증후군(CFS)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CFS는 접촉에 의하여 감염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CFS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데 그 경로나 방법은 아직 해명하지 못하였다.

CFS가 주목을 끌게 된 후로 이것이 전염되며 유행성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84년과 1985년 사이에 미국 네바다주(州)의 적은 도시에서 일시에 200명의 환자가 동시에 발병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그 마을의 의사들은 집단(集團) 히스테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증상이나 검사성적의 특성으로 보아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감염성 인자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후에 CFS가 감염에 의한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많은 보고가 있었다. 미국 남부지방에 있는 한 교향악단 단원 64명중 8명이 동시에 발병한 사실이 있으며, 오하이오주(州)에 있는 적은 마을의 국민학교 교사가 1년사이에 7명이나 발병한 사실, 그리고 일본이나 캐나다에서도 CFS가 감염성질환이라는 것을 입

**만성피로증후군의 전염방식이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나 에레베이터 속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등의 접촉 후에, 또는 항공기에서 옆좌석에 동승하는 것과 같은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증한 자료가 보고되었던 것이다.

### CFS는 울병(鬱病)이 아니다.

CF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이들을 진찰한 의사는 대개 울병이라는 진단을 하게 된다.

물론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중에는 울병과 유사한 것도 있으며 특히 CFS 환자는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생활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우울하게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울병과도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이다.

즉 울병의 경우는 CFS에서 보는 목이 뜨끔거린다거나, 임파선이 종창(腫脹)되거나, 발열, 근육통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은 없다.

또 울병환자들은 모든것에 의욕이 없고 무관심하여 사회나 이웃과 담을 쌓고 혼자 지내고 싶어 하는데 비해서 CFS 환자는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욕이 왕성하기 때문에 병의 치료방법을 모색하려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나타내는 정신증상이 뚜렷할때는 신체적인 증상은 가리어지게 됨으로 진단에는 정신적인 증상을 많이 참작하게 되어 울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CFS는 전 세계에 유행되고 있다.

CFS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병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다 퍼져있다는 것이다.

아직 그 전염방식이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나 에레베이터 속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등의 접촉 후에, 또는 항공기에서 옆좌석에 동승하는 것과 같은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직업인 의사, 간호사, 교직자, 항공기 승무원, 연극 또는 교향악단원 등과 같은 직업인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에이즈보다 이 질병이 더 무섭다는 것을 지적하는 학자도 많아 졌다.

그 이유는 CFS도 에이즈와 같이 면역계를 침범하는 것이 확실하며 에이즈는 성적접촉이나, 감염원이 비경구적으로

직접 몸안에 들어옴으로써 발병되는데 CFS의 경우는 단순한 접촉에 의해서 또는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이것 역시 면역계를 침범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버금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이환되기 때문에 에이즈의 주역이라고 칭하는 학자도 있다. 이제 CFS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예를 하나 살펴 보기로 한다.

## CFS의 위험성

CFS에 이환된 한 조종사가 기술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날 아침 나는 과거 수년동안 해온 것과 똑같이 항공기를 착륙시키기 위해 항공기를 몰다가 돌연 다른 활주로에 들어선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관제탑에서 잘못 지시하였거나 항공기의 위치를 잘못 표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자기스스로가 어느 쪽이 오른 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기적적으로 무사히 항공기는 착륙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25년간이나 이 관제탑에서 일해온 지휘관의 경험많고 노련하고 민활한 순발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조종사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의 회상에 의하면 착륙을 시도 할때 관제탑의 지휘관이 지시한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으며 일상 해오던 행동도 어떻게 해온 것인지 전연 생각나지 않는 혼란이 있었으며 자기 스스로가 어떤 병에 걸려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고 한다.

즉 그는 2년반전부터 CFS에 이환되어 있었으며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인푸렌자라고 진단했으며 그때의 증상은 미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두통, 전신의 근육통 그리고 심한 피로를 느꼈다고 했다.

이런증상이 얼마동안 지속되다가 좀 좋아졌으나 운동을 하였더니 다시 나빠졌으며 그 후로는 몸이 깨끗한 날이 없이 언제나 몸은 찌뿌듯하게 좋지 않았다.

그런상태로 항공기의 조종일은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시도해 오다가 이번에 이러한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이번 일이 있고 나서는 증상이 갑자기 나빠져 안면의 경련, 불면증, 식은땀, 심한 전신의 근육통, 어떻게 겨우 잠이 들면 어떤 의미를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 등의 증상이 날로 악화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고는 비록 항공기의 경우에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 단위는 훨씬 적지만 교통수단 전부의 운전과도 관계 되는 일이다.

따라서 CFS라는 확실한 진단은 아직 받은 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기증상, 인푸렌자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이 비단 작은 승용차의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을 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잡지읽는 생활속에 보람찾는 밝은내일